

스포츠 포커스

비호처럼 날새게 세계를 향해 뛴다

조선대 육상부

전통의 육상 명문 조선대 육상부(부장교수 김응식·이하 육상부)의 새해 힘찬 질주가 시작됐다.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지난 5일 오후 광주무등경기장. 이날 오전 대설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계속 퍼붓는 눈발로 경기장은 사실상 훈련하기엔 어려운 눈밭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을 지어 달리고 있는 9명의 건각들이 있었다. 바로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조선대 육상부.

시간이 지나 육상부원들의 트랙 도는 횡수가 늘어날수록 트랙에 쌓인 눈은 사라지고 붉은 색깔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면에 잦아들지는 더욱 거세게 눈발을 날리고 있었지만 이들의 질주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조선대 육상부는 올해 단거리와 필드 부문에서 전국 최정상권을 향한 무한 질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조선대 육상부가 정상권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우수 선수들 포진과 체계적인 훈련 등에서 비롯된다.

총 14명(트랙 7명·필드 7명)으로 구성된 육상부에는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이



전통의 대학육상 강호 조선대는 올해 단거리 우수선수들을 영입해 전국 정상권을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조선대육상부가 지난 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폭설이 내리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대표 3·상비군 3명 ... 14명 건각들 단거리·필드 부문 정상 향한 무한 질주

각각 3명씩 무려 6명이나 있다.

이 성(184cm·68kg·높이뛰기·4년)·박영식(183cm·120kg·해머던지기·3년)·윤종배(182cm·67kg·세단뛰기·3년)가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올해 '막내' 신입생들이인 조완진(186cm·76kg·400m·양주덕계고 졸)·정현석(173cm·72kg·100m·안산원곡고 졸)·김준호(183cm·70kg·200m·전남체육고 졸)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하면서 선배들의 뒤를 탄탄히 받치고 있다.

한국 육상 스타의 산실

지난해 전국체전 높이뛰기 5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한 이 성은 특유의 끈기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항상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성실과로 올해도 눈부신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 박영식은 투척기술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과로 해머던지기의 유망주이다. 2009대학육상선수권 세단뛰기

1위 윤종배는 타고난 유연성을 바탕으로 선배인 김덕현의 뒤를 이을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팀 주장을 맡고 있는 김다빈(183cm·74kg·400m·4년)과 김대엽(176cm·76kg·창던지기·2년)·1년생 김창근(182cm·74kg·800m·양주덕계고 졸)도 전국 상위권을 달리는 건각들로서 올시즌 팀을 이끌 주역들이다. 이밖에 임정민(173cm·62kg·멀리뛰기·4년)·정주영(172cm·67kg·멀리뛰기·2년)·추경성(175cm·73kg·400m·2년)·최승신(171cm·67kg·100m·2년)도 올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와 부상선수(2명)를 제외한 9명의 선수들은 하루 6시간씩 학교 체육단련장과 무등경기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체육대 4층 체육단련장에서 기초체력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각종 운동기구와 힘겨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체력훈련은

언덕달리기·타이어끌기·박스 점프 등으로 이른바 '지옥훈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실시하는 언덕달리기는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종목으로 경사구간 180m를 반복해 전력질주 한다. 훈련량은 100m 10회, 150m 15회.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대부분 선수들이 가쁜 숨을 내쉬며 그대로 땅에 드러눕고 마는 '초강력 훈련 종목'이다. 발목 힘과 손발력을 키우는 훈련인 박스 점프는 크기가 다른 상자 여러개를 놓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힘든 훈련 중 하나이다.

하루 6시간씩 맹훈련

또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가는 육상부만의 훈련 장소가 있다. 바로 화순 너릿재 터널 인근 산 정상으로 이곳엔 260개의 계단이 있어 교내에 있는 108 계단에서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육상부의 근력과 지구력은 바로 이곳에서 단련되어 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난 1962년 창단된 육상부는 그간 스타 육상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한국육상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영광스러운 영광들 중 80년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박종삼(창던지기)과 김재다(400m)를 비롯해 현재 세단뛰기의 아시아 일인자 김덕현(광주시청)까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노명래 감독·김창근·정현석·김수봉·정주영·김대엽·임정민·김다빈·조완진·김준호 선수.

육상부를 이끌고 있는 노명래 감독도 90년대 후반 김재다와 함께 400m 계주에서 환상의 질주를 펼치며 조선대 육상의 위상을 끌어올린 주역이다. 노 감독은 "올해는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

단거리와 필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동계 훈련을 통해 전국 정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응식 부장교수의 지도아래 꾸준히 조선대의 전통을 이어 오고있는 육상부의 올 시즌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CBS 광주 CBS TV 청년 영·혼을 사로잡는 힘. A grid of portraits of various individuals, likely related to the CBS Young & Soul program.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376-8607.